군산시, 발빠른 코로나 대응

9·10번 확진자 이후 동선 파악·방역 등 확산예방 총력
마스크 착용·생활 속 거리두기·철저한 개인위생 당부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하고 발빠른 대응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군산시 9번과 10번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선을 파악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를 보강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공급하며 확진자 동선, 방문자 및 가족들이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했다.

시는 방문판매업 전수 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내 59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또 현재 영업중인 46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방역 수칙 준수 안내 등을 실시했으며 화장품, 미용용품 등록 업체 11개소 등에는 생활 수칙 이행 협조 공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 또 각 기업체 출근 시 발열체크 등 자체 방역점검 및 방역관리자 지정을 요청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체 등에 소독 장비를 대여해 자체 방역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6개소에 대해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등원 축소 자제(긴급보육실시)를 요청했다. 또 청소년 이용시설 프로그램을 비대면 위주로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시까지 여성사회대학,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등을 중단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온라인 원격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선유도 해수욕장 등에는 현장 대응반을 구축해 방역상황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적극 홍보했다. 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이용수칙을 부착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요령 등을 홍보했으며 손소독제와 비누비치 등을 비치했으며 이용객이 많은 곳에는 환풍기 옆 벽걸이 선풍기를 설치해 공기의 순환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종합 민원상담을 코로나19진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단 할 예정으로 중단기간 중 상담 요청 시 상담협조 기관에 방문상담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이용수칙을 부착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요령 등을 홍보했으며 손소독제와 비누비치 등을 비치했다.

수제맥주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군산 맥아 & 수제맥주 체험교육' 수강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군산 맥아·수제맥주에 빠져보세요"

군산시농기센터, 체험교육 신청자 모집… 28일까지

수제맥주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군산 맥아 & 수제맥주 체험교육' 수강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군산맥아' 상품 출시와 째보선창의 수제맥주 특화사업장에 '군산 맥아 & 수제맥주 체험전시관' 조성을 앞두고, 군산맥아와 지역특산 수제맥주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8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시민과 관내 기업체 임직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세계적인 맥주회사의 양조기술 임원 출신이 강사로 나서며, 맥주 원료인 군산맥아 체험, 수제맥주 제조 실습과 더불어 다양하고 재미있는 맥아와 수제맥주 이야기로 진행한다

수강자들은 필스너, IPA(에일) 스타우트(흑맥주), 밀맥주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군산맥아 제조공정과 제조시설을 체험할 수 있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앞으로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맥주의 원료는 100% 농산물"이라며, "군산 맥아 및 수제맥주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제맥주 대표도시 인지도 선점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여 교육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국내 유일하게 맥주보리 전용 재배단지와 맥주의 원료인 맥아 제조시설, 지역특산 수제맥주 양조시설까지 일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교육 신청은 군산시 홈페이지 교육일정 안내를 참고하여 먹거리정책과 식품가공지원팀(454-525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익산시의회가 15일 제22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익산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부서별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연식·임형택(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용균·최종오(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충영·장경호·한동연(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됐다.

예결 위원들은 본회의 직후 회의를 열어 한동연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연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유재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첫 회기인 만큼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명확한 의정방향 설정으로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호응

군산시가 치매조기검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일부터 치매 어르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가 완화되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소는 그동안 등록자를 장기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치매 질병 특성상 자녀가 거주하는 곳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편의를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축산악취 저감 올인

고질적 민원발생 농가 감시체계 구축·상시감시반 운영

익산시는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80억원을 투입해 축협 경축자원화센터와 우주원 공동자원화시설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상지원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을 밀폐하는 등 환경개선에 주력해 왔다.

또 악취저감 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환경을 개선해 폐사율 감소와 출하일수 단축 등을 통한 소득향상을 도모했다.

시는 고질적인 민원발생 농가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과 축산악취 상시감시반 운영으로 악취 저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폭염기 축산악취에 사전대응하기 위해 278개 농가에 악취 저감제 100t을 공급했으며 축사 내·외부와 분뇨처리시설에 36개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악취저감시설을 완료한 농가 20곳을 대상으로 축사 내부를 실시간으로 악취관리를 할 수 있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설치해 농가 스스로 실시간 환경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고질적인 민원 발생 농가는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무인악취 자동포집기를 설치했다.

이 같은 시의 노력으로 상반기 축산악취 민원은 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에 비해 57% 감소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인화동 쪽방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

익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인화동 쪽방촌 지역이 선정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최근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 공모에서 인화동 쪽방촌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을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 국토부에서 처음 시행됐다.

시는 그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화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여건분석 등 공모사업을 준비해왔다. 시는 이 사업 선정으로 국비 50억원을 포함 총 83억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 SOC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김천시 우수농산물 교류 판매행사 연기

군산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군산시가 오는 21일 판매행사 예정이던 '김천시 우수농산물 교류 판매행사'를 연기했다.

이번 판매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월명체육관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4일 군산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1일 개최 예정이던 '김천시 우수농산물 교류 판매행사'를 최종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천시 우수농산물 교류 판매행사는 올해로 12회째 농산물 교류 직거래 판매행사로 유통 마진을 최소화한 가격과 신선하고 품질까지 뛰어난 것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매년 많은 군산시민이 찾는 행사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며 군산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김천시 우수농산물 교류 판매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9월로 연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연기 결정으로 아쉬운 심정이지만 농산물 판로 확대 등의 당초 목적을 감안해 9월중 연기 개최하여 김천시와 우리시의 농산물 교류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